

격 려 사

오늘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치던 날에 대견사 중창의 자리에 서게 되니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신라시대에 창건한 대견사가 일제강점기에 강제 폐사되어 백여 년 가까이 터만 남아 있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중창하여 3.1절에 맞추어 완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팔공총림 동화사와 달성군이 힘을 합하여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달성군청 개청 100주년을 맞는 날이기에 우리 불교계로서나 달성군과 대구시로서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견사라는 이름에는 몇몇 유래가 있지만 직접 비슬산에 올라보면 앞으로는 낙동강과 달성군의 너른 시가지가 펼쳐지고, 멀리로는 지리산의 모습까지 눈에 담을 수 있는 넓고 광대한 전망이 펼쳐져 있기에 민족의 기운과 미래를 크게 보고자하는 염원에서 대견사라 이름했다는 연유가 가장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수많은 기암들이 마치 화엄 신중들이 주위를 위요하듯이 감싸고 있는 대견사는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스님이 20여년간 주석하셨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우리의 자주의식과 민족 고유의 정서와 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삼국유사기에, 일연스님의 사상적 기반과 집필에 필요한 기록들이 바로 이곳에서 정비되고 구상되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민족의 기운과 미래를 크게 볼 수 있는 곳, 민족의 정서와 사상, 역사를 정비한 곳, 그곳이 바로 여기 대견사였기에 일본은 이곳을 폐사하여 민족정기를 끊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대견사의 중창은 단순히 폐사가 된 옛 사찰을 복원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

죽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견사를 받치고 있는 이 축석이 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이라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천 년 전 과거에 조성된 기반위에 현재의 새로운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우리의 정신과 정기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견사의 기둥은 새 것이지만 이곳을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는 천년도 넘는 역사를 잇고 있습니다.

대견사는 절의 형체가 없던 시기에도 주민들이 기우제 등, 불공을 드리면서 사찰이 지역사회와 서로 의지하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 왔습니다. 대견사의 중창이 가능했던 것 또한 동화사와 달성군의 합심과 노력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인 것처럼 사찰과 관공서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 오늘의 이 경사는 지역의 사찰과 관공서가 힘을 합하여 중요한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견사가 중창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문오 달성군수님과 지역의 각 기관장님, 그리고 달성군민과 대구·경북지역 불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이 불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팔공총림 주지 성문스님과 대중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년 3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